

영광·목포·신안 '초소형 전기차 특구' 신청

전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 공고

'전기 이륜차'·'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등 육성

영광과 목포, 신안 일대에 초소형 전기차들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특구가 만들어진다. 초소형 전기차는 현재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자전거의 전용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개정된 지역특구법의 발효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본격 시행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전남 영광·목포·신안 일대를 '규제자유특구'로 만들어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와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선도해 나간다는 게 전남도 목표다. 전남도는 초소형전기차·전기 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신개념 미래이동수단인 e-모빌리티 분야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정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지정한다.

전남도가 공고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군과 목포시, 신안군 일대 169만5713㎡로, 목포·신안 일대 자동차 전용도로가 포함된다.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농업용 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M)에 대한 신제품 개발과 주행 실증을 진행하는 한편, e-모빌리티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장, 특구로 지정되면 초소형전기차를 타고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지고 농업용 운반차와 4륜 바이크의 2인승 허용, 화물 탑재 등을 통한 안전성·신뢰성 검증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초소형전기차와 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농업용 운반차와 4륜 바이크의 경우 현행 법은 1인 승차가 가능하고 화물 적재를 제한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목포 IC·산정교차로 등 5.5km, 신안 압해대교 일대 3.3km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 36.7km를 특구에 포함해 관련 규제를 재설계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구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도로 주행 제한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M)에 대한 안전·도로 운행 실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구 지정을 계기로 영광·목포·신안 일대 곳곳에서 개인용 이동수단과 관련된 전용 안전장치·안전도 개발, 무선 충전 시스템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남도는 다음달 18일까지 지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의 e-모빌리티 분야 뿐 아니라 제주 전기차, 전북 홀로그래프, 부산 블록체인 등 10개 지자체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들 지자체는 5월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근혜 '디스크 통증' 구치소 현장조사

검, 1시간 면담·의무기록 검토... 이르면 주중 결론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갈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본래 지난 19일 임검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방문을 결정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중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계획 北에 통지

공동연락사무소 통해 전달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 남북 지역에서 27일 개최하는 기념행사 계획을 22일 북측에 통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상 매일 오후에 실시하는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의 시 4·27 1주년 행사 개최에 대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별다른 반응 없이 행사 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수령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개성 연락사무소의 정례 연락대표 접촉에서는 문서교환을 통한 의사전달 이상의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27일 통일부와 서울시·경기도 공동 주최로 판문점 남북 지역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평화 퍼포먼스'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은 처음 마주한 군사분계선을 비롯해 도보다리 등 판문점 내 5곳에 특별 무대 공간이 설치되고, 연주와 미술작품 전시, 영상 방영 등이 진행된다. 주한 외교사절과 문화·예술·체육계, 정부·국회, 유엔사·군사정전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내·외빈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북측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다.

이날 통보도 행사를 다섯 달 앞둔 시점에 이뤄져 북측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간 각종 협력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한 만큼 남북관계와 관련한 행사를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도 북측 참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으면서도, 최근의 남북관계 소강 상황 등을 감안해 남측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본사 인사	
〈편집국〉	
채희중	편집부국장 겸 사회부장
김진수	사진부 차장
김여울	체육부 차장
〈출판부〉	
박 철	출판부 차장
최대인	출판부 차장
윤순찬	출판부 차장
김성진	출판부 과장
양은영	출판부 과장
김상호	출판부 과장

계봉우 독립지사, 60년만에 고국땅에 잠들다

카자흐스탄서 유해 봉환

보훈처, 서울 현충원 안장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계봉우(1880.8~1959.7·사진) 선생 부부 유해가 22일 봉환돼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안장됐다. 카자흐스탄에 묻힌 지 60년 만의 귀환이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봉환된 유해는 서울 현충원으로 봉송돼 오전 11시 유가족, 광복회, 일반 시민 등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장됐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조국 광복을 향한 험로를 건너가 이역만리에서 숨을 거둔 지사님의 의로운 삶 앞에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깊이 새기고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안장됐던 계봉우 지사와 황운정(1899.9~1989.12) 지사의 유해를 국내 봉환했다.

유해 봉환은 지난 21일 오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공항에서 봉환식을 거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해 이뤄졌다. 두 선생의 부인 유해도 함께 돌아왔다.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독립지사의 유해 봉환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우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계봉우 지사의 유해가 22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2호기에서 운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처장이 직접 서울공항에 나가 귀환한 독립지사 유해에 예의를 표했다.

계봉우 선생은 1919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복간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1920년 5월 임시정부 간도 파견원을 맡았고, 독립신문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해 10월부터 치타극동공화국 국동부 한인부에서 활동했다. 1937년 중

양아시아에 강제 이주한 후 '조선문법', '조선역사' 등을 집필해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연구·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한편 계봉우 지사 부부 유해와 함께 고국 땅에 돌아온 황운정 지사 부부 유해도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연합뉴스

故김홍일, 5·18 규모역 안장

추후 국립묘지 이장 추진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유가족은 22일 김 전 의원을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규모역)에 임시안장 한 뒤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 유가족은 당초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변수를 만난 데 따른 결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유가족들이 협의한 결과 김 전 의원을 5·18 규모역에 안장하기로 했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5·18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청이 오는 회의를 해서(5·18 규모역)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보훈처 등 관계당국과(국립묘지 이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오전 6시 함세웅 신부 주관 장례미사와 오전 7시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규모역으로 바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증권 사장으로 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환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www.msu.ac.kr

세계적 수준의 웰빙 특성화대학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이승훈

학과

- 자연과학계열 | 간호학과·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방사선과 치위생과·보건행정과 식품영양과
- 공학계열 | 토목조경과·자동차과 전기과
- 인문사회계열 | 사회복지과·유아교육과 헬빙복지융합과
- 예체능계열 | 뷰티미용과·운동건강과

목포과학대학교 ☎ 061-270-2541~5

MOKPO SCIENCE UNIVERSITY 목포시 영산로 413-1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혼란기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무료 특강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2019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성공 전략

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전남지부장
- 前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 일 시 | 2019년 4월 23(화) 14시
- 장 소 | 김대중컨벤션 3층 강연장(델리하우스 3층 308호)
- 후 원 | 굿옥션/리안채
- 특 전 | 1. 추첨선물 - 정관장홍삼, 건강쌀
2. 참가자전원 - 기념선물, 굿옥션이용권2개월(7만원)

*선착순 70명 전화접수 마감

☎ 062)945-8500 010-5613-1808